



#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6 12월호

##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성경 / 눅 1 : 26~48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써 참 성도로……

김 창 인 목사 (당회장)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 장 26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 비천한 중에 있었던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높이 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본래 높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없는 시골에서 나사렛 처녀로 인간적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인생의 역사가 시작된 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온 우주에 가장 높으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를 가장 많이 하신 만유의 왕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태하여 해산하고 기뻐하셔서 키우셨으므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1976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높임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 마리아의 신앙이란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첫째로, 마리아의 신앙은 주님만을 찬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는 마리아가 천사의 명령을 받고 부른 노래의 첫 마디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써 참된 성도로 복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의 생활은 너무도 허탄한 것

을 쫓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생활과 공생활에 있어서 참된 주님을 노래한 마리아처럼 온전한 영혼의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일로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횡령과 도둑질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와 자기들의 식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돈·권세·명예보다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까지도 준비하신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생활을 합니다. 마리아는 “내 마음이 내 주를 기뻐하였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제일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명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한 것은 전 인류 역사상 꼭 한번만 있을 일을 듣고 그대로 믿어 확신 가운데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처녀의 몸이 성령으로 임태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만, 그러나 처녀가 임태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씌 당시의 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인류역사상 없었던 단 한번만 있을 일을 그대로 믿을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순종하였습니다.

### 은혜 많이 받고도 패역한 우리들

그러나 오늘날 패역한 우리들은 열번, 백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무슨 일을 당하면 의심하고 함부로 거역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마리아는 처음에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신앙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가장 높임을 받는 성모 마리아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생의 목적을 가지고 돈보다, 명예와 권세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말씀만 굳게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월간 증현

### 12월의 행사

- 5/'77년 제직임명·정기제직회·남전도회임원회·권사회임원회·산업전도회임원회·재정위원회·해외복음선교회실행위원회
- 12/'77년 구역임원임명·남전도회총회·권사회총회·여전도회임원회·남전도회헌신예배
- 14/산업전도회총회
- 15/육호기선교사 파송예배
- 19/'77년 주교교사·임명·여전도회총회·여전도회·헌신예배·월간증현 12월호 발행
- 20/육호기선교사 서독에 파송
- 25/구주성탄절(크리스마스)
- 26/'77년 성가대원 임명·구역권활회·주일학교 각부 수료식
- 27/주일학교교사총회
- 28/특별제직회

### 12월호 차례

- <말씀>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김창인 목사..... 2
- ▶특집①< 1976년의 나의 열매>  
토막기도와 응답 속에 감사/구명신 전도사... 6  
생각속에 싹튼 감사생활/김광호..... 6  
영아부예의 조그만 충성/배옥인 집사..... 7  
선한 봉사에 전력/지금산 집사..... 7  
금년에 얻은 성과/신성종 목사..... 7
- ▶특집②< 1976년 증현교회를 말한다>  
월간증현 간사진들의 이야기.....10
- <성탄시> 별명이 그 빛을 숨기지 않고  
/크리스티나 로세티..... 4
- <성탄동화> 옥의 크리스마스/박홍근..... 8
- <기획연재⑥> 학원전도·복수전도·방송문서  
전도/오배용.....22
- <신실부서 소개> 산업전도회/김의철 집사.....18
- <한국교회 순교사②> 최권능 목사/이정웅 .....19
- <책 소개> 죽으면 죽으리라/조순근 집사.....20
- <캠페인> 사랑과 구제를.....20
- <찬송가 해설> 오 벨베헤 작은 고을.....21
- <1200자 칼럼> 겨울·성탄·서정/이형수.....21
- <구역장 노우트①> 신앙지도와  
지침(3)/백성통 목사.....23
- <수필>버스는 성경암송에 좋은곳/손동운 집사 17
- 해외교우 주소록③.....17
- <교회뉴우스>.....24
- <편집 후기·표지설명>.....2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570).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

### 1976년 교회주요일지(1~11월)

- 1월 4일 공동체리회  
5일 신년 단기수련회(4일간)  
18일 제2회 선교주일·권사회총회  
26일 제13회 겨울어린이성경학교(4일간)
- 2월 8일 지도자양성부 개강·특별집회 실시  
9일 기업인수련회  
15일 공로표창제도 실시  
23일 성경학원 개강  
26일 중·고등부 동기수양회(3일간)
- 3월 18일 성가부 부흥회(3일간)
- 4월 11일 춘기성례식  
12일 고난주간 특별집회(6일간)  
18일 부활절  
30일 첫 평신도선교사로 유병세 집사 일본에 파송
- 5월 2일 어린이주일  
5일 주일학교 교사 합동친교대회  
8일 제11회 경로회  
9일 어버이주일·헌혈 실시  
16일 장로투표 실시  
30일 교회주최 성경암송대회(에베소서)
- 6월 16일 성경학원 제1회 졸업식  
21일 제2회 농어촌교회교역자 초청훈련(5일간)
- 7월 4일 산업전도교육부 개교  
6일 산업전도회 창립총회  
15일 청년부 하기수양회(3일간)  
16일 제일성가대 하기수양회(2일간)  
17일 남전도회 야외예배  
18일 맥추절  
19일 대학부 하기수양회(5일간)  
21일 당회장 김창인목사 해외선교여행(5개월)  
22일 제5회 농어촌교회 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5일간)  
26일 교육 1부 여름성경학교(4일간)  
27일 교육 2부 하기수양회(4일간)
- 8월 6일 선교사 이연호 목사 홍해지역에 파송  
9일 제5회 농어촌전도대 파송(10개지역)  
10일 제4회 장로수양회(3일간)  
15일 지도자양성부 제9기 수료식·미국뉴우욕에 증현교회 설립
- 9월 5일 본교회설립 23주년 기념  
8일 추석성묘합동예배  
23일 선교사 홍종만 목사 홍릉에 파송  
30일 교회주최 성경퀴즈대회(빌립보서)
- 10월 1일 주일학교 각부 교사친교회  
3일 교회주최 성경암송대회·성경교사대회(빌립보서)  
17일 추기성례식
- 11월 9일 평신도선교사로 신동수 집사 아르헨티나에 파송  
11일 장로장립식(정석태·최성림)  
21일 추수감사절

## 이 해를 보내면서

“인생의 길이는

얼마를 살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청지기로서 살았느냐에 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5, 16).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두고 있음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란 서양의 격언도 있거니와 시간은 대단히 귀한 것이다. 물론 시간이 곧 돈이란 말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표현한 말이거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시간의 중요성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엡 5:17) 그것을 충성된 청지기로서 보내는 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를 곁해야 한다. 첫째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두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여기서 「아끼다」는 말은 「엑소고라조」 즉 속량하여 산다는 뜻이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의 차이를 말해준다. 자연적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영적 대속적 시간인 것이다. 즉 나를 위하여 보내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진 의미의 시간을 말한다. 성경은 결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진 므두셀라(창 5:21, 22, 25; 눅 3:37)를 삶의 대표적 모형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적 시간의 길이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다가 죽은 많은 순교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한다(계 14:13). 이렇게 볼 때에 인생의 길이는 얼마를 살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청지기로서 살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의 많고 적음에 구애 없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못 받고에 관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느냐에 정비해한다고 하겠다.

이제 1976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지나온 일들을 반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금년의 영적 농사는 이만하면 되었어” 하고 한 해의 결과에 만족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영적 열매를 추수하면서 계산해야 하겠으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생의 영적 농사는 일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기의 좌표를 분명하게 보고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금년 일년 동안 교계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홍종만·이연호 두 선교사의 해외파송과 평신도선교사들의 활동 또한 눈부시었다. 그러나 중환이 안고 있는 세계사적 사명은 아직 미진하며 특별히 “천국일군을 키우자”란 당회장 목사님의 교육방침은 그냥 맴도는 메아리처럼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또 한해를 보내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사용하던 “다 그런거지 다 그런거야”가 아니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로 청소년교육이 문제가 된다. 해마다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그것도 모든 종악법들의 퍼센테이지가 청소년층에 높다는 것은 교회가 의연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로 의식구조의 개조를 위한 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주일만 교회에 나올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적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 하루만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은 아무래도 병적이다. 세상은 족보 없는 교육, 족보 없는 신학이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일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라”(딤후 3:14)고 했다. 즉 족보 있는 교육 다시 말해 칼빈주의 교육이 현 장로교회에서 보기 어렵다. 이것이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칼빈주의의 기독교교육은 신학교 교실에서만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숙제를 안고 간다. 그렇다고 성급해 할 필요는 없다. 착실히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lt;주간&gt;

서울 예루살렘에 깊이 잠들고,  
 사람 웅성거리던 베들레헴 마을도  
 늙은이건 젊은이건 모두 잠들었느니라.  
 성도와 천사, 황소와 당나귀,  
 서로 서로 만나는  
 겨울철 크리스마스 새벽녘에  
 눈을 떴니라.

엄마 품에 잠든 아기 예수의 모습,  
 마굿간은 무척도 추웠더니라.  
 하나님의 어린양은 바트 그이려니  
 에워싼 양떼의 목자시어라.  
 처녀 마리아와, 허리를 굽힌  
 머리칼에 서리 어린 요셉의 모습,  
 성도와 천사, 황소와 나귀 함께  
 우리도 영광의 주를 기리리.



\* 크리스티나 로세티 (Christina Rossetti, 1830-94)  
 영국 제일의 여류시인. 그녀의 시의 특색은 동요집과  
 신앙시집의 둘로 나뉘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통되는  
 점은 땅 위의 향락적 생활의 유혹에 대한 영혼의 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집으로는 「요마의 시장과 그  
 밖의 시들」 및 「새 시집」이 있다. 내부생활의 침통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뇌의 리듬이 그녀의 신앙시를  
 생기있게 한다. 그녀는 여자다운 자제와 경건으로 시  
 를 썼다.

# 1976년 나의 열매

- ◇...1976년도 어느 덧 저물어 간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는 또 되돌이...◇
- ◇...킬 수 없는 과거로 돌려보내면서 「1976」을 정리하며 선을 그어야 될 것이...◇
- ◇...다. 항상 주님 안에서 열매맺는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들은 올해에는 어...◇
- ◇...떤 열매를 맺었는가? 모두가 한번쯤은 꼭 생각해 보고 남겨야 할 과제. ...◇
- ◇...그래서 오는 해엔 보다 발전적인 모양으로 반복되는 실수와 미흡한 부분...◇
- ◇...을 보완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함께 기도드리자. ...◇

## 토막기도의

### 응답 속에 감사

구 명 신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해마다 연말이면 예의없이 꼭 같은 제목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또 예의없이 쓰는 사람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후회하는 일들 또는 부진했던 일들을 나열해 놓곤 한다. 나 역시 그 예의일 수는 없어 이것저것 주섬주섬 적어내려 갈려고 생각하니, 그보다도 더 앞서 내 머리 속에서 강하게 생각나는 것은 그래도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데 한 해에 선교사를 4명씩이나 파송했다고 하면 사람이야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받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감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다. 2,3십년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하나 풀려지는 것을 볼 때 놀랍고도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실 때에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이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처럼 단순하고도 의미마디 기도를 드린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못할 것이다.

꼭 한가지 제목으로 반평생을 걸다시피했다. 주일이 돌아오면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다. 성수주일하고 싶은 마음과 방해되는 여건들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밤상을 차려놓고, 살며시 집을 나와 교회까지 가는 동안의 기도제목은 꼭 한가지 “하나님, 나 왜 혼자 보냈니까?” 별다른 수식어도 색다른 단어도 사용하지 않을 줄 모른다. 눈에서는 눈물이고, 입에서는 중얼중얼 꼭 실성한 사람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 전부터 바뀌어졌다.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옵니까?”로 바뀌었는데, 내가 대

학부에 처음 임명받았을 때에 시작한 기도제목이다. 근래에 와서는 기도의 제목이 또 바뀌어 “하나님 나도 감히 일꾼을...” 하고서는 차마 다음 말은 주께 맡기고는 감히 들어 계속하지를 못한다. 나와같이 대화를 나눈 그 학생들에게만이라도 참 올바른 씨앗을 심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단순한 의미마디 기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렇다고 생활의 안정에서 오는 감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영적인 기쁨이란 누가 뱉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데서 오는 기쁨이다. 수심이 가득찬 얼굴로 찾아오는 젊은이들과 마주앉아 같이 손목잡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걱정해 주면 별다른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지만 소망이 찬 기쁨의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감격과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보내놓고 수첩에 이름을 기록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감히 저들을 주의 일꾼으로 바로 키울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나는 무력합니다. 저들을 바르게 키우게 해주세요.” 저절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진다. 지면을 통해 잠깐 드러나면 좀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이해하고 또 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며 폭넓은 품에 깊숙이 안길 수 있다면 저들은 분명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큰 일꾼들이 되어갈 것이다. 제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일지는 몰라도 받은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고 감사해서 1976년의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주 안에서 감사하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자」는 말로써 마치고자 한다.

## 생각 속에 싹튼 감사생활

김 광 호

(제일성가대원)

한장의 달력이 땡그런이 남겨질 때면 지구가 365일의 주기를 따라 공전하듯 또 한해가 의미 없이 혹은

무가치하게 보내진 것 같아 실망을 느낀다. 그러나 새해를 기다리는 세모에 서게 되면 또다시 결심할 수 있는 한해가 오게 되어 희망을 갖는다. 영어로 thank(감사)와 think(생각)의 단어에서 난 이상한 낱안스 서로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 아닐까 추측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는 느낀다거나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결혼한 후, 남들은 여자가 세서 나를 여자 교회로 끌여들였다고들 한다. 허나 오히려 이 면을 자랑한다면 공처가라고 나를 규정지을지? 하여튼 3년간의 총현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까지 지켜온 신앙을 다른 차원으로 성장시켰다.

첫째 감사는 지도자양성부를 이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생각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성가대에서의 찬양이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며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대열에 서게 된 것이다.

세째는 우리의 결실이 열매로 맺혀져, 나의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의 어린 선물이다.

이렇게 크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느끼며 더 큰 성장이 일하시길 기원하면서 이 해를 보낸다.

## 영아부예의 조그마한 총성

배 옥 인 집사

(영아부 부장)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과 죄악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총성과 은유와 절제니(갈 5:22-23)라고 밝히 있습니다. 앞에 말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놓고 회고하여 봅니다.

첫째, 공적인 면에서 영아부에서 봉사하면서 영아부의 중요성 아니 보다 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셔서 자력은 모자라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다 보니 정소영 전도사님의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 성경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가르쳤더니, 과연 120명 영아부 애기들과 학부모님들의 영적인 많은 성장을 보았다고 확신하면서 1976년에는 총현교회가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로 뭉친 또 하나의 커다란 열매를 맺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사적인 면에서도 영아부에서 봉사하다 보니 너무나 필요했고 중요한 영아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소의 당하였던 부분을 우리교회가 시작했고 부족하지만 이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봉사하였더니, 아마도 충실한 열매는 못되지만 조그마한 총성의 열매 하나쯤 맺었다고나 할까요?

## 선한 봉사에 진력

지 금 산 집사

(제일성가대 차장)

할렐루야! 존귀, 영광, 감사, 찬송을 성삼위일체께 돌리며 금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먼저 지난 일년

동안 본인이 속해 있는 제일성가대에서 받은바 큰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지난 여름 제일성가대에서 하기전도대를 조직, 멀리 제주도 서귀포의 서남교회를 기점으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성경말씀을 생각할 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하기전도를 시행함으로써 제일성가대의 모든 대원들에게 새로운 사명감과 성실한 봉사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이었다.

둘째로 대원중에 몇 뜻맞는 대원들이 모여 2개월 전부터 모 육군병원전도에 힘쓰고 있는 점이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 중 불치의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고통·절망·낙망에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은 환우에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아옵니다"를 불러 주며 개별전도를 실시, 매주마다 감격하여 예수님을 믿고 참 신자가 되었다고 결심하는 환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이처럼 하나님께 또 새로운 면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먼저 새로운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맡겨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대원 개개인의 신앙향상을 위하여 주님과 기도로서 교통해야 됨으로 이 일을 위해 매달 철야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됨을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감사하고픈 것은 헌신적인 대원들의 봉사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운 일이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짜증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불평 없이 해나가는 귀한 봉사자들을 우리 제일성가대에선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제 이 해를 보내면서 두손 모두에 주님께 드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 제일성가대원에게 많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같이 법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 금년에 얻은 성과

신 성 중 목사

(대학부 지도)

### 1. 교회적인 면에서

먼저 회 밖에 없는 대학부를 그래도 주일학교로서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성과라던 성과다. 다음은 「월간 총현」이 교회 기관지로서 한국 제일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주관으로서 영광이다. 사실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 2. 사적인 면에서

그러신 학교에서 시간강사였던 내가 전임강사·정교수·학감 등 달마다 한 제급씩 진급했다는 점이다. 더 우기 보수주의 학자로서는 최초로 「신학총론」의 집필을 시작하게 되어 내년 2월까지 탈고하게 되니 비판자들이야 무어라 하든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 욱의 크리스마스



박 홍 군

<동화작가·시인>

욱이는 국민학교 2학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욱의 머리 속은 서울역 광  
장처럼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가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지만, 욱이처럼 많은 계획과 즐거움으로 기다리  
는 아이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저번 주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욱이는,  
“엄마, 남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야?”

하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 때, 엄마는 부엌에서 점심준비를 하고 있었습  
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엄마는 눈에 웃음을 담고 말했습니다.  
“씨이…… 남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냐 말야.”  
욱이는 엄마가 그것도 모르느냐는 눈빛입니다.  
“응, 알았어. 욱이 하는 말이, 불쌍한 사람을 사  
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지?”

엄마가 자기가 묻는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서 욱  
이는 기뻐했습니다.

“응,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말야, 불쌍한 사람을 우리들이 도와주는 것  
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야.”

그래도 욱이는 머리를 가우뚱하거나 눈썹을 가운  
뎠다 모으고 엄마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보아, 아직  
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 같습니다.

“저말야, 예수님은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야. 그러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된다  
는 거다. 알았지?”

“응, 알았어!”  
욱의 웃는 눈동자가 까맣게 빛났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욱  
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자꾸만 입 속에서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그 날부터 욱이는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를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친한 아이들의 얼굴만 자꾸 떠올  
랐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 며칠이 걸렸  
습니다.

욱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철호와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철호는 아버지가 없는데다가 형제가 많은 아이였  
습니다. 언제나 구멍이 난 양말을 신고 학교에 다  
녔습니다.

아주머니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동넛집에 다니는 일이 없  
었습니다. 그리고 동넛사람이 아주머니의 집으로  
찾아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기는 해도 가끔 길에서 만나면 욱이는  
“아주머니 안녕하셔요?”

하고 인사를 하면,  
“오냐 욱이냐, 욱이는 언제 봐도 명랑하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욱이는 그렇게 해주는 아주머니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아주머니가 어쩐지 쓸쓸하게 보  
여졌습니다.

“아빠, 나말야,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줘도 돼요.”  
아빠의 등에서 목을 안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욱  
이를 옆으로 바라보며

“그래, 그것 듣던 중 가장 반가운 말이구나……”  
하고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 대신 돈 줘야 해요.”  
하고 욱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선물 주는거냐 마찬가지가 아냐. 이젠 좋  
다가 말았는데……”

아빠를 따라 엄마도 욱이도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욱이는 아빠에게서 돈 천원을 받았습니다. 크리  
스마스 선물은 큰아버지와 삼촌이 줄 것을 굳게 믿  
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계산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  
이 있어도 심부름을 가지 않겠다는……

작년 크리스마스 저녁이었습니다. 욱이는 원효로  
에 있는 큰집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  
다.

큰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몰랐습니다. 일곱 시부터 교회 유치부 예배실에서 주일학교 성탄 축하 예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두워진 거리에서 기다리는 버스는 얼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겨우 올라탄 버스는 도중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옥이는 울고 싶을 만큼 안타까웠습니다.

한참 뒤에 온 버스를 갈아타고 교회 유치원으로 갔을 때에는 유치원 대문이 굳게 닫혀진 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대문 밖에서 마구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한 동안 추운데서 떨고 있는 옥이는 울먹이며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돈 천원을 받은 옥이는 우선 철호에게 줄 선물로 양말 세 켤레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 아주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철호의 선물처럼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옥이는 할 수 없이 엄마에게 의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옥이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선물이 뭐가 좋아?”

하고 불쑥 물었습니다.

“엔, 또 무슨 소리냐?”

하고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참, 엄마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하겠단 말야.”

“옳아, 이웃집 아주머니께……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야 알지… 글썄다, 뭐가 좋을까……”

엄마도 생각합니다. 옥이도 마주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뭐가 좋을지……”

엄마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도 몰라?”

“엔, 엄마라고 뭐든지 척척 생각해내는 척척박사인 줄 아니……”

엄마와 옥이는 유쾌하게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옳지, 그 아주머니 교회에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성경책이 좋아!”

하고 엄마가 기쁜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최고야!”

그리하여 옥이는 아름답게 포장한 성경책과 또 크리스마스 카드로 주일학교 성탄 축하 예배의 초대장을 가지고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옥의 엄마는 옥이가 주일학교 성탄 축하 예배의 초대장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옥의 비밀이었으니까…….



옥이는 이웃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 단추를 눌렀습니다. 안쪽에서 “부웅”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하고 옥이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문을 열어 준 아주머니는 옥이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무척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옥이는 대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츄지, 어서 들어가자.”

하고 아주머니는 옥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이구 고마와라, 이걸 어찌나.”

하고 기쁜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주일학교 성탄 축하 예배의 초대장이어요. 아주머니, 제가 오늘 밤에 독창을 해요.”

“옥이가 독창을…… 장하구나. 그럼 아주머니도 구경을 가자지! 이건 무슨 책이지?”

“성경책이어요.”

“성경책! 이런 고맙게도……”

아주머니의 눈 앞에는 미국에서 사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딸은 얼마 전의 편지에도 어머니를 교회에 나가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아까보다 아주머니의 얼굴은 더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밤은 옥이가 출연하는 성탄 축하 예배에 가기로 하고, 앞으로는 옥이와 함께 아주머니도 교회에 나가기로 하자!”

하고 아주머니는 옥이를 힘껏 껴안아주었습니다.

땡그렁 땡그렁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밤은 옥이가 출연하는 성탄 축하 예배에 가기로 하고, 앞으로는 옥이와 함께 아주머니도 교회에 나가기로 하자!” 하고 아주머니는 옥이를 힘껏 껴안아주었습니다.

# 1976년 충현교회를 말한다

◇.....1976년도 국내외적으로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해이었다. 이제 한해를 마.....◇  
 ◇.....무리지으며 급하게 변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를 더듬.....◇  
 ◇.....어 한해를 대략 정리함으로써 새해 교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교회내에서 글쓰는 사람은 성직자의식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생각과 「전체를 보.....◇  
 ◇.....는 눈」을 가지고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월간 충현의 입장에서 일.....◇  
 ◇.....을 해 온 실무진들이었기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했던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잠시 그 공인(公人)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을.....◇  
 ◇.....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1976년의 「우리 교회의 일들」과 「월간.....◇  
 ◇.....충현」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편집자>.....◇

## '76년의 기념비적 사업은?

(방)

(답)

- 일 시 : 1976년 12월 6일 저녁
- 장 소 : 월간 충현 편집실
- 사 회 : 조 선 근 집사<월간충현 편집국장, 유치부 부감>
- 참석자 : 정 은 표 집사<월간충현 간사·산업전도교육부 부감>
- 이 형 수 선생<월간충현 간사·유년부 교사>
- 오 태 용 선생<월간충현 간사·중등부 교사>

□ 기 록 : 김 인 숙 기자

사회 : 시간나는 대로 자주 머리를 맞대고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의논하곤 했지만 오늘처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둘러앉기는 처음입니다. 이제 1976년을 보내면서, 금년 한해 동안의 여러가지 일들을 정리해보고 넘어가야겠다는 다소 의무적인 압박감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월간 충현을 만들어 오며 우리는 충현교회적인 입장과 나아가서는 전 한국교회를 보는 눈으로 생각하고 일해 왔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항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더욱 눈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일해오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점들과 이제 공인(公人)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탄없이 나눴으면 합니다.

교회 전반에 걸쳐 또 「월간 충현」 발간에 종사해 오면서 생긴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전도·교육·구제·봉사·성전건축 등 여러가지의 사업 중 성과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큰 업적을 남긴, 다시말해서 기념비적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정 : 1976년의 우리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자연히 지난 해와 비교하게 되는데요....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사업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교회가 계속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성전건축문제와 해외선교의 안정적인 정착 등이 여전히 미해결로 남겨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 활발했던 해외선교분야

그런 중에도 금년에 괄목할 만한 것은 역시 해외선교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의 일본 파송을 비롯하여 홍중만·이연호 목사님의 선교사 파송, 신동수 평신도선교사의 남미 파송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 또한 당회장 목사님께서 3개월의 세계여행을 하시면서 해외에 있는 선교기관을 돌아보시고 그곳의 선교정책 담당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교회의 선교문제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금년에는 해외선교 분야가 두드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 : 저도 정집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특별히 배세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역시 해외선교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해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 국내외적으로 볼 때, 선교문제가 조금 정비된 생각이 듭니다. 가령,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파송했던 선교사의 문

제가 제기됨으로써 선교사 파송에 따르는 조사·정보 등의 준비작업의 필요성을 실례를 통해 실감하게 되었고,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선교정책의 필요성의 인식 등으로 우리교회의 선교문제가 앞으로는 보다 정비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당회장 김목사님의 해외여행으로 뉴우육에 지교회의 설립,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와의 자매결연 등 세계 여러 교회와 손잡는 등의 문제도 성과라고 보아야겠지요.

### '76년—해외에 알려진 충현교회

정: 한 마디로 '76년은 외국에 충현교회가 알려지고 관심을 쏟은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두분이 이야기한 대로 해외선교에 두드러진 관심을 보인 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더욱 우리교회를 내적으로 볼 때 교육면에서 또 하나의 발전을 이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능별로 조직된 교육위원회의 각 분과 기능을 강화하려 한 데 편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오지 못한 교육위원회가 금년부터는 그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 교회내의 12부 주일학교에 대한 지도·조정·통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과 우리교회가 산업전도에 관심을 가져 주일학교 「산업전도교육부」를 신설하고 교회 내 기업인들이 중심으로 「산업전도회」의 발족으로 산업전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금년 우리교회의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능별 편성의 교육위원회

정: 지금 산업전도교육부와 산업전도회의 신설이 큰 성과라고 지적하셨는데, 새로 발족한 것으로 만족하기 보다 발족의 과정상에 생각해야 할 점들도 많이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산업전도교육부 부감으로 지내면서 느낀 점인데요... 새로이 조직되는 주일학교라면 먼저 교과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재와 교사와 시설은 물론 피교육자를 어떠한 사람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교육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최저수준도 마련되기 전에 사람부터 모집해 놓은 감이 없지 않아요. 일반 조직체에서 법하기 쉬운 파오 중의 하나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즉 필요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해 놓고 필요성을 찾는 거예요.

### 필요성을 찾는 조직의 모습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산업전도교육부, 산업전도회가 신설되었다는 그 자체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큰 효과를 얻고 발전을 하는 길은 앞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저 조직이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부에서도 다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닐까요.

사회: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교회 주일학교가 모범적이라 해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데 지금 정집사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외유적인 출범을 한 산업전도회도 큰 목표나 포부는 갖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설정이 아쉽고 단계적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지요. 지금까지는 정지작업이나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교회가 산업전도에 관심을 쏟기 시작해서 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성과로 꼽아야 할 것입니다.





<조 선 근 집사>

오: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실제 사회 요구가 있는 것이라면 시작해 놓고 앞으로 조금씩 구축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교회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창의적인 좋은 발상이 있으면 충분한 사전조사·적정여부 등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우리의 실정에 맞게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토의·연구·기도를 하면서……

이: 결정이 되었으면 사전에 광고·선전도 좀 하고 말이지요. 산업전도회, 산업전도교육부가 신설됐지만 과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 큰 교훈 얻은 흥해지역 파송

사회: 계속 문제점이 나오는데… 조금 더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 금년은 해외선교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연호 목사님의 흥해지역 파송에 대해선 좀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 나라가 곧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다가 들어가면 된다……

사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파악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가기 전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는데 가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점 등……

정: 흥해지역 선교사 파송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런 정도로 마무리지어 간다는 것이 교훈을 얻는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도 되지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지요. 따라서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사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의 절실한 교훈을 얻었다는 면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회: 금년에 국내전도는 어떠한가요? 금년에 특히 오선생님이 월간 총회에 전도문제를 연재하여 우리교회 전도활동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 이번 12월호로 국내전도에 관한 정리를 대략 끝내는 셈인데 얼마나 할 특별한 것을 지적하기 어려워요. 그동안의 도움말을 주신 정기성 목사님의 말씀은 금년에 전도위원회가 발족하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보건대는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교역자 혼자 애쓰시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 중간연결자의 빈곤

정: 오선생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내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가 발전하고 조직이 비대해지니까, 정책입안자와 실제시행자와의 갭(gap)이 너무 커서 대화의 소통이 잘 안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책입안자와 실제시행자의 교량역할을 할,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중간관리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간연결자의 부재현상은 실행에 있어서 상호연관성, 통일성, 계열성 등을 무시하고 각 실제시행자의 생각대로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전도문제에 있어서도 유년부가 하고 있는 전도방법을 대학·청년부가 하고 있고 대학부가 하고 있는 방법을 유·초등부가 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중간연결자의 발굴·확보 등이 큰 문제가 아닐까요?

사회: 실제행동의 리더(지도자)가 없다는 뼈아픈 지적을 해 주었어요. 매년 계속되는 행사들이 대부분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하는 면을 볼 때에 그



런것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이: 어느 의미로 보면 정책입안자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싶어요. 매년 발견없는 행사나 사업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퇴보하는 경향 등은 정책입안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또한 조직은 토의·결정을 위한 것과, 연구 또는 실행을 위한 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조직마다 그 기능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연구기관에 의결하는 인원으로만 구성되었다면 그 조직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정은표 집사>

### 활동의 맥락—농어촌전도

정: 전도라면 인상깊은 것이 농어촌전도입니다. 그외에는 타기관·개척교회·군인교회의 재정보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좁은 의미로 우리교회 전도활동의 맥락을 잊고 있다는 농어촌전도도 과거와 별다른 점이 없어 보여요. 농어촌전도에서 문제점은 결신자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데…… 우리의 주장으로는 현지교회가 계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시되고 있어요. 금년에는 결신자에게 월간충현을 전부 우송할 수 있었던 점이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오: 결신자 역시 인격적인 어떤 만남에서 믿어야 될 의지적인 입장에서 결신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저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는 경향——이건 저도 전도를 나가 봐서 느낀 점인데——이 많지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적어 오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농어촌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또한 국내전도로서 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잠자리전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각 사단 군종과에서 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취침시간에 찬송·기도·설교를 내부반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를 통해서 보내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큰 효과가 있어 많은 곳에서 우리교회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 다 응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 해결할 수 없는 교육여건

사회: 다음은 교육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요?

이: 많은 제도적 외부적 문제가 있겠지만, 또 이 문제는 성전건축문제의 적절치겠지만——금년도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고 넘어간 문제가 학생과 교사와의 시간이 너무 없다는 점입니다. 한 주일에 15-20분 정도를 그나마도 일방적으로 효과를 생각치도 못하며 전달하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식으로 한 부서에서 3년정도 배우고 졸업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생각할 바가 많아요. 결국 교회의 주된 사명이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학생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친 후 얼마만큼의 변화를 기대해야 하고,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나로 보며, 스스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주일학교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태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에 관한 모든 여건——교사·교재·학생장소·시설——의 구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





<이 형 수 선생>

선 장소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계속 문제만 제기되는데... 방향을 조금 돌려서 교회생활에 있어서 봉사 즉 청지기적분의 충성 또는 구제의 면은 어떠했다고 보는지요?

### 구제·교제의 빈곤

이: 지난 달에 영락교회에서 「영락교회의 구조론」이란 제목으로 신학적 사회학적 두 측면에서 영락교회를 분석·조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교제(koinonia)와 구제의 빈곤을 무척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들었어요. 교제와 구제의 빈곤의 문제도 비단 영락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교회에서도 생각해 할 점이 아닌가, 아니 전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교제와 구제의 빈곤은 현재 구미(歐美)의 일부 교회가 텅텅 비어 하나의 유물과 같이 되어가는 현상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시사를 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교회에서 보다 차원 높은 면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차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에 한번씩 실시하기로 했던 우리교회 친교대회가 내년에는 그나마 없어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친교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회: 참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월간 충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요?

급년에 특징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했다는 것과 표지를 오프셋 인쇄로 바꿨다는 체제면에서의 특징과 내용면에서 기독교윤리문제를 다뤘다는 것, 독서 캠페인·물자절약캠페인 등을 벌였다는 것, 구역소식·구역공과난을 두었는데, 얼마나 활용이 가능했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선생님부터.....

### 윤리문제에 방향 제시

오: 특징으로 삼은 기독교윤리문제——결혼관, 직업관, 주초문제 등——는 젊은이들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이겠는데, 성서적인 입장에서 우리교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었다는 것이 수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주초문제 같은 것은 교회 밖에서까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꽤 인상적이었어요.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윤리문제에 방향을 세웠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난 해에 이어 월간으로 그것도 급년엔 4면이 증면된 20면으로 낼 수 있었다는 것이 대견합니다. 그나마 9월호에는 44면 특집호를 낼 수 있어 우리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 큰 인상으로 남습니다. 내용면으로는 9월호 특집에 실렸던 정경사님의 「중현교인의 신앙명세서」를 꼽고 싶어요. 이것은 「월간 충현」의 성과일 뿐 아니라 우리교회적으로 봐서도 급년에 우리교회에서 얻은 큰 수확 중 하나라고 보겠어요.

사회: 좀 부정적 면에서 들려온 이야기인데, 외국에 다녀오신 어느 분의 이야기가 해외에 나가 보니 「월간 충현」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다, 해외에 나간 교우들 소식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말을 더러 들었다고 하는데...

이: 그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용해야 할 「월간 충현」

또한 저희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월간 충현」은 교회 기관지인만큼 교회에서 이용을





<오 태 용 선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인사이동·광고, 해외교우의 연락관계, 미담의 소개 등 교회에서 이용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데 교회에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몇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으니 충분한 정보·자료를 교회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부탁을 드려도 협조가 잘 안되지 않아요?

사회: 좋은 말씀이었어요. 어느 면에서는 이용을 해야한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소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정: 제도적으로 채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을 위해서 금년엔 자료실을 운영하기를 열망했지만 금년에도 충분하게 못했어요. 월간 증현의 입장을 보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별 관심없이 보고 실무자만이 안타까이 어떻게든 발전시키려고 애쓰는데 「월간 증현」이 발전을 하려면 전교회적인 힘이 합해져야 한다고 보겠어요. 물질·인적·정신적인 면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교인과의 매개체로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월간 증현」인데, 교회에서 못하는 것인지, 월간 증현지가 못하는 것인지? 아 물론 현재로서는 「월간 증현」측이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교회 밖에서 더욱 관심

제도적인 보완, 자료실의 보완 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월간 증현」에 대한 새로운 인식——즉 월간 증현을 키우고 이용해야 한다——의 보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내부보다 교회 밖에서 보다 더 기다리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면 실무담당자는 서운함을 금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힘만 들고 교인들에게 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다가도 여기저기서 고맙다는 엽서를 보내오는 것을 보면 또……

오: 현재의 선지자는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보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환영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다같이 웃음)

사회: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도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갔으면 해요. 예를 들면, 각종 회의에 기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메모를 하고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정: 현재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우선 우리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이 일은 단순히 반복적인 일처럼 열심히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새해에는 인적 자원의 확보와 훈련 등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 인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소위 사회의 기자들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강박관념에서 오는 면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월간 증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록 평신도지만 글을 쓰는 입장과 태도는 성직자 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보고, 판단하고, 쓰는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밝혀 두고 싶군요.

이: 또 조직·제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최소한 편집위원선까지는 실무를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더욱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사회: 그동안 「월간 증현」을 위해 일해 오면서 있는 에피소드들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오: 글 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마감시간까지는 써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 글쓰는 괴로움

이: 글이랑게 참 묘한 거예요. 마감 전날은 새벽 2,3시까지 앉아서 이리



저리 뒤척이다 보면 또 잘 써져요. 것처럼 안타깝고 고통스럽다가도 글이 끝나면 것처럼 개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은 괜히 기분이 하루종일 좋아요.

정: 써야 할 원고가 안 써질 때의 그 안타까움은 뼈를 깎는 것과도 같지요. 하루하루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살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더군요. 이처럼 한참 진통하다 보면 글이 나오더군요.

사회: 글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도 그렇다는데... 보고서를, 뭐 이런 것은 꽤 많은데 창의적인 것이라 할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정: 또한 충현교회라는 인식의 중압감이, 글을 쓰는 데 매우 강하게 작용해요. 내가 쓰는 글이 국내의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쓰는 일에 큰 부담이 되더군요.

사회: 그럼, 끝으로 「월간 충현」에 대한 미래의 꿈을 얘기해 봅시다.

### 「월간 충현」의 미래

정: 우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겠어요. 이것은 전문적인 기능직이기 때문에 먼 안목을 가지고 장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고·대·청년부 문화·공보 담당 임원들과 어떤 형태든지 유대관계를 맺어 그들이 앞으로 「월간 충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심어주고 또 교회에서는 「월간 충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중 임무를 맡기지 말았으면 하는 점이지요. 이 일은 정신적 정력이 너무 소모되는 일이기때 보다 더 많은 배려를 요합니다. 또한 월간 충현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월간 충현의 정보 및 자료요구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 「월간 충현」을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교회가 주일학교의 계단공과 작업에 재정·인적 자원을 지원하여 교단적인 사업을 성취해 놓은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서활동면에서도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단은 문서활동면에서 매우 약하다는 이야기들을 흔히 하는 데 이와같이 문서활동면에서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발전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에도 몇가지의 신앙교양지가 나옵니다마는 훌륭한 신앙교양지로 발전시켜 그것을 한국교회에도 돌려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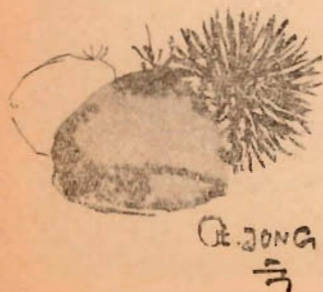
사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정집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정리되어야겠지요. 인적 자원 확보문제·재정문제 등,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모든 교인이 「월간 충현」을 키워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월간 충현」을 아끼고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월간 충현」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 못한 것 같은데 언제든 기회있는 대로 더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도 더욱 힘써 「월간 충현」을 성장·발전시켜 우리의 꿈을 또 한걸음 앞당기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국내 독자에게 알림 □

1977년도 「월간 충현」 국내 배포를 위하여 국내 독자의 주소와 계속 구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1977년 1월 8일까지 편집실로 연락 바랍니다. 아울러 격려의 서신을 주신 국내의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간 충현」 편집실



□ 수 필 □

## 버스—성경암송에 좋은 곳

손 동 운 집 사

<남전도회회계·고등부교사>

지난 9월 26일에 있었던 빌립보서 암송대회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암송한 빌립보서 암송에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동기나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기여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 1회 암송대회에 실사를 본 바로 위의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회원은 불과 1주일 동안에 에베소서 전장을 암송했으나 연결을 잘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등부 여교사 한분은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사서 구루마에 싣고 청량리 밖의 모 시장까지 구루마를 끌고가는 동안 에베소서을 암송했는데 그렇게도 기억이 잘 될 수가 없다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에 감명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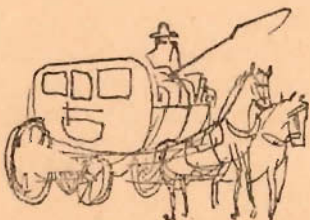
실은 저도 에베소서를 암송하려고 계획과 시간을 짜 놓았으나 이모저모로 시간을 다 빼앗기고 나니 성경을 암송할 시간이 없더군요.

그런데 이 두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구루마를 끌면서 길에서 성경을 암송한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저로 하여금 버스 안에서라도 암송할 수가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었습니다.

작은 쪽지에 하루 2,3절씩을 적어서 버스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몇날 지나니까 때로는 대문을 나서면서부터 암송하게 되고 결국은 버스를 타고 시작하여 내리기까지 빌립보서 전장을 암송하고도 시간이 남더군요.

금번에 그 여교사와 같이 빌립보서 전장을 암송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여교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해외에 계신 총현의

### 식구들에게 알립니다

<해외교우 주소록③>

..... 해외에 나가 계신 총현의 교우들의 주.....  
.....소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매월 보내는.....  
.....「월간 총현」 받으신 분은 일차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주소의 착오나 이전 등은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해외에 계신 총현의 교우.....  
.....의 주소록을 게재코자 하오니, 피차 성도.....  
.....의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

(32) Mr. Dong Soo Shin(신동수 집사)  
CASA 207 BARRIO PTE RIVADIVIAA  
CAP BS. AS. ARGENTINA

(33) Mr. Jong Pyo Lee(이종표 강도사)  
905 SANS SOUCI DR 103 RALEIGH, N.  
C. 27609 U.S.A.

(34) 崔壬祥先生(최임상 집사)  
153 日本國東京都目黒區下目黒 2丁目 19-8

(35) Mr. Kwak Eun Chul (곽은철 장로)  
3205 W. 17th St. L.A. Calif. 90019 U.S.A.

(36) Mr. Seoug Hoon Kim(김성훈 집사)  
1653 AMBERWOOD DR 62 SO, PASADE-  
NA Cal. 91030 U.S.A.

(37) Miss Myung Ok, Choi(최명옥 씨)  
ARTIFICIAL KIDNEY UNIT CENTRAL  
HOSPITAL, RIQADH, SAUDI ARABIA

(38) Mr. Uk Jun, Yoo(유옥준 씨)  
903 S. Ashland 101413 Chicago ILL. 60607  
U.S.A.

(39) Mr. Chang Ho Kim(김창호 씨)  
5934 Glennor Rd Baltimore Md 21239 U.  
S.A.

(40) Mr. Suck Ki Kwon(권석기 씨)  
3109 S.W. Avalon Way 10 Seattle WA.  
98126 U.S.A.

(41) Mr. Soo Eon Moon(문수연 씨)  
61 East-West Drive Pittsburgh Pa. 15237  
U.S.A.

(42) Mr. Sung Kuk Kim(김성국 집사)  
Rua Conde Sarzedas 238 Sao Paulo BRASIL

(43) Mrs. Chun Hyang Lee(이춘향)  
410 Dorchester Dr Augucto. GA 30903 U.  
S.A.

(44) Mr. Ki Bok Han(한기복 씨)  
7 Deauville Ct Apt. 1A Baltimore MD.  
21208 U.S.A.

(45) Mr. Young Min, Park(박영민 씨)  
982 So Manahattan P.L. L.A. Calif. 90019  
U.S.A.

(46) Mr. Chi Mo Kim(김치모 씨)  
212 MERCER ST APT 2 READING PA.  
1960 U.S.A.

(47) Mr. Dai Il Kim(김대일 씨)  
P.O. Box 176 YAP W.C.I. 96943 U.S.A.

## 산업전도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김 의 철 집 사

<산업전도회 전도부장>

우리 총련교회 산업전도회가 「오늘 내 직장의 복음화 내일 산업사회의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본교회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사회의 복음화에 뜻을 둔 이들이 지난 7월 6일 창립 발족하여 이제 6개월 만인 12월 14일 제 2차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이런 산업전도회에 대하여 교우들 중에는 산업전도회가 무엇을 하기 위한 모임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이란 단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렐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 클라크(G. Clark)는 경제진보의 제조조건(The Condition of economic progress)이란 저서에서 산업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 1차산업은 원시적산업이라고도 하고 원료생산산업이라고도 하는데 농업·어업·임업·목축 등을 들 수 있고, 제 2차산업은 제조·건설·전기업·광업·공업·가공적인 근대산업을 뜻하며, 제 3차산업은 상업·서비스업·수송업·금융업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사·변호사·의사·창고업·이발업·요식업·영화업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니 실업자·어린것까지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자연물에 사람의 힘을 가하여 그 이용가치를 창조하고 또 이것을 중매하기 위하여 그 형태를 변경하거나 또는 이것을 매매 따라 이전시키는 경제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놀고 먹지 않고 땅을 일하면서 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산업전도가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장막집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셨고(행전 18장 3절)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도와주실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면서 일하신 것이니 복음전파를 하시는 성직자도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제 3차산업인 특수산업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군인전도를 황금어장이라고 한다면 수습총회는 고충별당전도 수습명에서부터 수만명까지되는 큰 기업체 공장등 산업사회전도도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누가 5장 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길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으니, 황금어장 산업전도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육식문제보다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육신도 잘된다고 하는 생활원칙을 말씀하심인데 이 공식을 산업전도에 적용한다면 모든 산업인은 먼저 영혼문제가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앙문제는 둘째로 접어놓고 산업에만 치중

해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북유럽에 스칸디나비아반도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이 전국민의 90%이고 GNP가 전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지만 영혼문제 성령의 역사 기도운동 순복음운동을 상실한 까닭에 겉으로는 기독교사회주의를 적용하여 빵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반면 자살자가 너무 많고 성적 문란 패락주의 허무주의적 사회풍조를 견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또 산업전도를 잘해보자고 하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자기가 담임한 교회에 찾아가 보면 새벽기도회를 문닫은 지 오래되고, 재림·천국·심판·예수의 동정녀탄생·부활·성령의 역사 이와같은 신앙의 핵심문제에 대한 확실성이 없을 뿐아니라 성경을 가감하지는 않는가요. 신실한 사회주의자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반면 말씀중심 성령의충만 경건한 생활이 보수신앙의 요소라 한다면 이와같은 알맹이는 빼어놓고 교리적 교단행정적 관란만 내세우면 보수신앙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일부 경향은 융통성이 없고 마치 사회참여를 하면 큰일이나 나는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참 보수신앙을 가진 자로서 사회참여에 외유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총련교회산업전도회는 황무지와 같은 보수교단의 평신도운동에 새활력소가 되며 소망스러운 신호탄이 되어줄 것과 아울러 중단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주시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토의와 세미나를 통하여 이상적인 산업전도가 어떤 것인가를 회원들이 공부했고 회원들의 기업체 신앙면과 산업실태조사를 하며 병행하여 국내에서 모범적인 산업전도를 한다고 하는 두개 기업체의 실태조사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① 회원 직업별분류 ② 상호산업정보교환 ③ 공동협조(Cooperation) 이와 같은 단계적인 성장을 통하여 아마 1977년도부터는 좀더 활발한 산업전도회가 될 것입니다.

산업전도는 결코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직접 간접으로 우리 모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에 뜻을 가진 분, 또는 산업전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저 말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힘으로 산업전도 요원을 양성하고 각종 기업체에 복음전도 사업을 벌이며 또 산업전도교육부를 지원하고 복음적 기업운동을 같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 최권능 목사—전도에 미친 사람

이 정 웅

<고등부교사·충신연구원 2년>

본명 최봉식 목사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별명인 최권능 목사라 하면 어린 주일학생까지도 잘 알고 있는 목사이다. 최목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준 교훈이 많다. 그는 일생을 주의 말씀 전파하는 데만 헌신하였다. 그는 너무나 말과 행위에 권능이 있어서 최권능 목사라고까지 부르게 되었으며 그의 별명이 본명처럼 불리우게 되었다. 그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나 글로 된 책자가 별로 찾아 볼 수 없어 아쉽다.

최봉식 목사는 1869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한문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한문학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젊은 청년으로 군수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마음이 깨끗하고 재물을 탐내는 일이 없어서 생활이 몹시 가난함은 말할 수도 없었다.

그가 평안북도 삭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때 나이는 대략 33세.

### 1. 신학생 시절의 전도

최목사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많다. 그는 한문공부도 하였기에 매우 유식한 분이었는데도 예수를 믿고는 더욱 겸손하여졌으며 전도의 열이 불타서 자리에 앉아 있을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학생이 공부하는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학교 성적은 좋지 못하여 낙제를 하여, 같이 입학한 자가 졸업을 할 때도 다시금 더 공부를 하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가 “남들은 졸업을 했는데 최전도사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라고 물으면 최목사는 조금도 어색한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1년 더 공부합니다.”하며 절절 웃었다고 한다. 학교 시험 때에는 다른 학생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목사는 낮에는 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밤에는 밤새워 철야기도를 한 후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시험지를 받고는 “까망구만 새까망구만”하면서 그냥 나와서 하는 말이 “시험에는 성령도 켈쩔 때는구만”하는 우스운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머리가 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전도에 열심하였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 2. 노방전도

최목사가 전도하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다. 그는 어디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전도하였다. 길가면서도 전도하면서 다녔다. 그의 전도 내용은 “예수천당” 혹은 “예수천당, 마귀지옥”하며 전도하였다.

유명한 전도이야기는 곡산(황해도 곡산군의 군청 소재지)산골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화전민들이 높은 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배가 고파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도 전도는 해야겠다 생각하고 지혜를 내어 “아이이고 배야”하고 덩굴었다. 김매던 사람들이 뛰어들어와 어디가 아프냐고 친절히 대해주었다. 웃으면서 배가 아프지 않고 당신들이 지옥갈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며 “예수믿고 천당가라”고 하였다. 화전민들은 속은 것에 화가 나서 “예수고 딱다구리(평안도 방언: 딱다구리)다 실소 켜히 미친놈 소리 듣고 내려왔군”하고 욕을 하였다. 이 때 최목사는 “예수님은 딱다구리 가운데 진짜 딱다구리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하였다. 농부들은 최목사의 말을 잘 듣고 그를 칭찬하여 주었다. 그날 밤 농부들은 목사를 데리고 가서 전도장면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

도 잇을 수 없던 이야기는 평안북도 산골에서 전도하며 길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화전민이 여기 저기 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없어서 갑자기 “야단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하며 소리를 치니 화전민들이 산에서 급히 내려왔다. 이때 목사는 “당신네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야단났고 큰일난 것이다.”하니 그 농부들이 속아서 산 중턱까지 험뎌험뎌 내려온데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다가는 매달아 죽을 것 같아서 피신하였다. 그가 아무리 피해도 결국 잡히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암행어사 출두요”하였다. 노회에서 전도에 공이 크다고 하여 금메달을 표창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이니, 무지몽매한 농부들은 아직도 「암행어사」라는 직책이 있는 줄로 알고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암행어사」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나라”하면서 전도하여 그날로 그 산골동네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한다.

목사는 일생을 걸거리나 산골이나 도시나 어느곳에서든지 전도하였으며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하였다.

### 3. 개척교회, 찬송, 순교

최목사는 평북에 있는 강계, 벽동, 자성을 중심으로 산간벽지를 걸어다니면서 전도에 열중하였다. 그리하여 36곳이나 산촌, 농촌에 교회를 세웠다. 또 만주에 선교사로 가서 14년간 한국민족들에게 또 중국인들에게 전도하였다. 그곳에도 역시 50여곳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하여 약 86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평양 감옥에 들어가 6년간 옥고 생활을 하였다. 감옥에서도 항상 찬송과 기도과 전도였다. 감옥에서 여러 죄수들이 목사를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그의 말에 순종하고 또 그들의 죄를 모두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었다. 사모님이 감옥으로 면회를 오면 나가서 창살에 마주대고 “항상 기뻐하라”고 목사가 위안의 말을 하면 사모님은 “취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는 40일간 금식기도를 한후 1944년 4월 16일,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하면서 최후로 기쁘게 찬송가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평명한 천당에 편히 쉴때”를 부르면서 하나님 품안에 안기었다. (\*)

##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  
 .....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  
 .....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  
 .....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  
 .....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  
 .....우리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  
 .....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  
 .....리는 전 교인들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  
 .....인을 벌입니다. —월간 총현 편집실 .....

부 추천하고 싶은 책 ☆  
 안 이 숙 지음

## 죽으면 죽으리라

기 독 교 문 사 발 행  
 국판, 478면, 값 1,400원

36년간의 일제시대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게 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시기에 신앙을 연단하는 계기가 되어서 많은 순교자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사화(史話)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맥을 흐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이 책은 일제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당시 처녀의 몸으로 옥고를 치루고 나온 안 이숙 여사의 수기이다. 저자 스스로가 「실격된 순교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듯이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일제의 기독교 탄압에 항거했던 것이다. 저자는 당시 옥중에서 겪었던 갖가지의 이야기들, 주기철 목사의 옥중사(獄中死)의 뒷소식을 비롯하여 옥중 성도들의 감추었던 비화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그 이야기들이 충격적인 감동으로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 책이 발행 후 8년간 한국 교계 출판사(出版史)에 유례가 없는 장기 베스트 셀러를 기록한 것은, 저자가 겪었던 일들이 곧 우리 겨레가 겪었던 바로 우리와 가까운 우리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평북 박천에서 출생, 평양 서문여고와 일본 경도여전을 졸업, 선천 보성여고에서 교편을 잡다가 신사참배 강요에 필기·투쟁하여 투옥되었다. 지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부군 김동명 목사와 함께 교역에 전념하고 있다. 어쩔지 자주 회미해져 가는 오늘날의 신앙 풍토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감동깊은 책으로 여겨져 아직 읽지 못한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어진다.

\* 조선군 집사(월간총현 편집위원)

## □ 캠페인/사랑과 구제를 □

금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해를 보내야 하는 우리들은 또 다른 하나의 제목을 붙잡고 남은 76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랑과 구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적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성탄과 새해를 맞아  
 가난한 이웃과 형제에게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에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약성경에서)

# 오 벨레헴 작은 고을

(O little Town of Bethlehem)

(새 130)

오 벨레헴 작은 고을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네 어찌 모르나  
온 세상 사람 잠들어 꿈꾸는 동안에  
주 그리스도 아기가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도록 저 기사를 말없이 지켰네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비치었다. 하늘에 큰 별이 빛나던 순간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 엄숙한 축복의 사실을 기다리던 이가 눈으로 보았고 귀있는 자들이 들었다. 세상은 그리스도 나신 이 날을 기념하여 크리스마스라 말한다. “오 벨레헴 작은 고을”은 옛날과 다름없이 마을 가난한 이들이 그를 만나고 생명을 주는 마시는 크리스마스의 찬송이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필립스 부룩스(Phillips Brooks)로 1868년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받은 감회를 자기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불리우고자 이 찬송을 지었다. 성지를 돌아보며 본요하고 번거로운 세상이 좋은 자리다 차지하고 그의 나심을 아는 제도 없을 때 돌볼 사람없는 갈기유에 뉘었던 아기 예수의 모습을 상상하며 심각한 명상에 잠겼던 것이다. 그의 생각은 더욱 전개되어 들에서 양치던 순박한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하는 천군천사들의 장엄한 합창을 듣고 구세주 나심을 축하하러 베들레헴으로 밤새 달려가던 일이며 저 멀리 동방의 세 박사가 왕의 나심을 알려주는 기이한 별빛을 따라 먼 길을 피곤도 잊어버리고 오직 드릴 에물을 가슴에 품고 베들레헴 낮은 구유를 찾아가던 이들이 눈에 어른 거리는 역제할 수 없는 그리움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다.

어린 영들에게 감격을 전해주기 위한 회상에 잠긴 찬송의 작사자인 부룩스는 대학 졸업 후 철두철미한 신앙과 순결한 성격을 가진 전도생활로 당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큰 성과를 거둔 명실교가였다. 설교와 함께 찬송가 작자로 공헌이 큰 그는 소년시대에 그의 가풍을 따라 찬송가 암송을 많이 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거의 200편에 가까운 노래를 외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후년 그의 설교나 찬송가 작사 내용에 풍부성과 표현에 좋은 거름이 되어 주었던 듯하다.

‘오 벨레헴 작은 고을’의 작곡자인 레트너(Lewis Redner) 부룩스와 함께 필라델피아삼일교회(Trinity Church)에서 봉사하던 오르가니스트 겸 주일학교 관리자로, 그가 남겨 놓은 아무 장식도 없는 아름다운 이 곡은 1868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 부룩스 박사로부터 작곡 의뢰를 받고 지은 것으로 작곡자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날 밤 늦게 멜로디를 잡아쓰고 화성은 그 이튿날 즉 크리스마스에 썼다고 한다. 온 세상 사람이 잠들어 꿈꾸는 동안에 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새벽 별이 홀로 그 기사를 말없이 지키듯 1868년의 크리스마스는 「오 벨레헴 작은 고을」의 찬송가로 온 하늘이 덮였을 것이다.

12월 25일

## 겨울 · 성탄 · 서정

이 형 수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 서울에 왔다. 온통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리에는 「아기 나셨도다」의 리듬이 충만했고, 상점마다 쌓아놓은 상품으로 산을 이루고 있었고,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실물크기보다 크게 걸려 있었다. 길거리는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밀려나갈 정도로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모두가 즐겁고 화려한 것 같았다. 모두가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 곳이 없었다. 어디를 가나 자기를 반겨주는 것 같지가 않았다.

2,000여년 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의 탄생에 대해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그 당시의 현실에 조금은 모자란 듯한 박사들 몇사람만이 그의 태어남을 축하했을 뿐.

왕의 탄생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이다.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야가 왔지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야로 왔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제일 낮은 신분으로 오셨으며, 종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축하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어느 환경에서도 늘 그들을 지키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은 어머니의 모습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굿간에도 있었던 것이다.

성탄절을 겨울에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든다. 더구나 도처에서 겨울의 서정을 만날 수 있는 12월도 다 가서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기까지도 하다. 아무리 공해로 더럽혀진 오늘의 서울이고 세계이지만 흰 눈으로 뒤덮인 12월에 맞는 성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비워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진실한 눈동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조용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히 빈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만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 학원전도 · 특수전도 · 방송, 문서전도

오 배 용  
<원간총원 간사 · 중등부교사>

지난 23년 동안에 큰 교회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는 전도활동에 있어 일사불란한 체계에는 좀 미흡했던 것이 그간의 우리교회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중차대한 사명인 전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76년에는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했으니, 곧 전도위원회의 발족이 그것이다. 우리교회의 전도활동에 제통과 질서를 부여하고 활기와 기동성을 불어 넣기 위해 그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었다.

우선 급년에는 각 분과별로 기초작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의 사명탐 구실을 하게 될 전도위원회를 돕고자 원간「총원」은 지난 6월부터 교회 전도활동의 발전을 위한 기획연재를 시작하였는데 이번 호로써 국내전도는 끝을 맺게 된다. 이 기획연재는 우리교회의 전도현황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문서화한 것이므로 일목요연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애당초 의도대로 발전적 지침이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본 연재를 위해 자료와 도움말을 제공해 주신 정기성 목사(전도위원회 지도)께 감사사를 드린다.

이 달에는 국내전도의 마지막 분야로 학원전도 · 특수전도 · 방송, 문서전도의 세 가지를 한데 묶어 알아 보려고 한다. 여기서의 특수전도란 유치장이나 양로원 등 지금까지 다루어 온 분야 이외의 주로 소외지대 전도를 가리키기 위해 붙여본 이름이다.

### 1. 학원전도

학원전도란 주로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를 말한다. 한 국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곳이 대학이고 장차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될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대학생들이라는 데서 학원전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한 마리를 낚아도 대어(大魚)를 낚아라! 낚시꾼의 이 모토는 전도에 있어서도 통해야겠다.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시정의 필부(匹夫)보다는 창조적 지성인으로서 어느 처소에서든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전도의 우선 순위(priority)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사회에 나가 각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기에 말이다. 우리는 이의 좋은 예를 사도 바울 자신과 그의 전도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군인전도와 마찬가지로 학원전도 또한 캠퍼스라는 영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를 대학부에 위임시키고 있다. 즉 대학부로 하여금 캠퍼스 전도를 담당케 일임하고 그 재정적 지원을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학원전도를 우리의 기대만큼 대학부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젊은이들에게 좀더 사명감을 불어넣고 훈련도 시켜 학생들에게 복음을 주는 일면 교수들에게도 참 진리의 빛을 비추주어 명공실히 캠퍼스의 복음화를 기해야 하겠다. 또 각 캠퍼

스의 기독교생회를 지원하는 것도 학원전도의 한 방편이다. 이것을 거점으로 복음의 확장과 유능한 인재 발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 외에도 본교의 교인 중에 초·중·고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각급학교 복음화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전도의 사명감에다 적절히 훈련만 되면 이것처럼 좋은 방법도 아마 드물 것이다. 또 미션 스쿨(기독교계 학교)에 교목을 파전하는 것도 구상 중이나 우리 교단 제통의 기독교 학교가 별로 없는 현실로서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 2. 특수전도

서두에서 밝힌 대로 이것은 소외지대 전도를 말하는 데 유치장, 고아원, 양로원, 병원촌, 버스 안내양 합숙소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에 대한 전도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 각 지회에서 그때 그때 위로 및 전도활동을 벌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좀 더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 청년부에 이 특수전도를 위임시킬 계획으로 있다.

### 3. 방송, 문서전도

현재 당회장 김창원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설교는 4년 전 기독교방송(HLKY)의 전파를 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우리교회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은혜를 전국 방방곡곡에까지 나눠주어, 신·불신간에 커란다 감화를 끼쳤었다.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는 어디서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 저 천의 장막 속에서는 전하는 입이 없으니 어찌 들을 수 있으랴. 공산진영에도 복음을 전하자는 의도에서 1975년 12월부터는 기독교방송에서 아세아방송(HLCA, 1570 KHZ)으로 옮겨 방송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타이틀로 방송되는데 강원도 일부 및 멀리 해상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의 비용으로는 매월 약 4만원 정도 소요된다.

또 한가지 이색적인 것으로는 「잠자리 방송」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군 부대에서 밤 10시 취침시간을 이용해 스피커가 시설된 각 내무반의 사병들이 잠들기 전 찬송과 기도 및 설교를 방송해 주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 잠자리 방송은 한의욕에 찬 젊은 군복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 이 밖에도 청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교회의 제반 여건이 충분치 못해 다 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서전도에서는 연 60만장의 전도지 발행 배포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앞으로는 병원과 유치장 등 특수전도용으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란다. 본월간「총원」지도 국내외에서 문서전도의 일익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끝)

## 구역 소식

### 축하합니다(11, 12월 중 결혼)

- 윤명식집사/윤두한장로 권연순편사 아들—11월 23일, 충현교회
- 윤형철·이명자—11월 23일, 충현교회
- 정하향·김애영—11월 27일, 기독교 대화관
- 문영순/박유녀집사 딸—11월 27일, 문화관광 호텔 7층
- 마은락/마성락집사 동생—11월 30일, 수원 문화예식장
- 박해원/박상운·김정례집사 딸—12월 6일, 영빈관
- 한진철/김옥선집사 아들—12월 8일, Y.W.C.A.
- 김갑숙/김치일집사 진영순권할 딸—12월 11일, 임천교회당
- 문인모·백원선/동대문구역—12월 16일, 충현교회

### 위로드립니다(11월 중 별세)

- 김수길/윤상규여사 아들—13일
- 김중희집사—15일
- 유병양집사—16일
- 김봉관/박경복편사 부군—22일
- 김성하/필동 ① 구역—23일
- 김동현/장충 ② 구역—30일

### 11, 12월 중 해외 이주 가족

- 김성국집사—11월 16일, 브라질 상파울로
- 김도점집사·김영화편사/주일학교, 성가대, 여전도회, 권사회, 전도위원회, 재정위원—12월 9일, 미국

###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 선교지 인도네시아에 계신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과 그곳에 합류하신 이연호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 지난 9월 홍콩 선교지로 가신 홍종만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 일본에서 평신도선교사의 임무를 갖고 일하시는 유병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아르헨티나에서 역시 평신도선교사로서 일하시는 신동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12월 20일 서독으로 파송되는 선교사·육호기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 특별제직회 소집공고

- 대상: 충현교회 1977년도 시무 제직
- 일시: 1976.12.28(화) 오후 7시
- 장소: 본당 2층 대예배실
- 내용: 예배, 1976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1977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 구역장 노트 ①

### 신앙지도의 지침(3)

백성 룻 목사  
(구역권찰회장)

(3) 절대적인 복종: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신앙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롬 2:13). 기도했다는 결과가 복종에 있다(마 26:42). 하나님과의 대화가 말씀(성경)과 기도로 성립되는 것이라면 복종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생활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곧 실천에 옮겨야 한다. 만일 복종을 못했을 때에는 용분의 처벌을 자오하고 회개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삼상 15:20~29).

사울이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말씀에 완전 복종이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음에도 (롬 3:10) 온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큰 모순처럼 보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 복음 안에서 복종이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회개하는 일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간주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① 믿음 ② 회개 ③ 순종 이 셋을 반복 혹은 연결해 가는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다.

#### 3. 교회생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성도와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교회생활의 시작이다.

교회생활이란 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②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③ 성령말씀을 「배우며」 ④ 거룩한 「교제」를 가지며 ⑤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며」 ⑥ 받은바 은사를 따라 신령한 일에 「봉사하는」 적극적인 생활자세를 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자의 교회 안에서의 공격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공격 생활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받아 사는 생활이며 오늘날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이며 바로 그리스도의 재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것이다.

(1) 모이는 일에 힘쓸 것: 교회가 공격으로 모이려고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된 일기에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예배와 성례에 참여할 것: 모여서 먼저 할 일은 사람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예배가 바로 그것이며 성례에 참여하는 일이 그 일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마땅한 예의인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적으로 바쳐 섬기며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신앙의 표현이어야만 한다.

## 충현기도원 시공 예비

—경기도 대쌍령리 현지에서—

지난 12월 6일 「충현기도원」시공현장인 경기도 대쌍령리에서 부목사 백성통 목사와 건축위원장 김기정 장로, 동산관리위원장 한명옥 장로를 비롯 교인들과 지방유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충현기도원」시공예배(백성통목사 설교)를 드렸다. 올 12월 말까지 정리작업을 끝내고 곧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한 공사비로는 5천여 만원이 소요되리라고 하는데 지난 12월 정기제직회에서는 앞으로 이 기도원 건축 공사비를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이 「충현기도원」이 완공되면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던 장소문제가 약간 해소되어 각종 기도회는 물론 각부의 수양회 실시 장소로 활용되어 교회부흥과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이제까지 다른 기도처에 지불되던 장소 사용료도 절감되어 예산절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1월 3일부터 9일간

—1977년도 단기수련회—

해마다 연초에 실시해 온 충현교회 단기수련회가 세 해에도 열리게 되는데 오는 1월 3일부터 1월11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예년과 달리 6일까지는 부흥집회로 모이고 7일부터 중전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강의와 훈련이 실시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눅5:5)라는 표어를 내걸고 실시될 이번 수련회는 중전과 달리 강의 내용의 범위를 좁히는 반면 길고 실제적인 면에 치중되도록 계획하여 보았다고 관계 실무자는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함은 물론 모두 참석하여 새해 말은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가다듬고 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 저녁

## 성경학원 제2회 졸업

—지도자 양성부 제10기도—

충현성경학원 제2회 졸업식이 본당에서 오늘(19일) 저녁 예배 후에 있게 된다. 제1회 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다시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성경학원은 평신도들의 순수한 성경연구와 교육을 실시하는 일과 지도자양성부를 운영, 주일학교 교사양성 등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한명옥 장로, 회장에 피선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총회에서—



우리교회 11한명옥 장로(사진, 동산관리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번 열린 수도노회 남전도회연합회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아울러 이병학 집사(교육위원)는 회계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신임 회장에 대한 연합회 기대가 크다고 한다.

##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20일, 육호기 선교사  
서독에 파송—

목사로서는 4 번째인 육호기 선교사(사진)가 오는 12월 20일 서독으로 파송된다. 이는 해외선교에 계속하여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온 우리교회에 허락하신 또 한가지의 크신 은혜이며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서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이유를 해외복음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육호기 선교사>

① 독일은 유럽의 중심지로 앞으로 유럽지역의 선교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이루는 데는 주재선교사가 꼭 필요하다. ② 독일에 있는 교포들의 신앙적인 지도자가 보수적 입장을 떠난 자들이 대부분이므로 교포들의 보수신앙 지도를 위해 충현교회가 담당하여 보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③ 독일선교비자를 이미 취득한 육호기 목사가 자신을 충현교회에서 파송하여 줄 것을 청원하여 왔고 본 교회로서는 시간적, 경제적 유익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난 12월 15일(수)에는 육호기 선교사 파송에 배가 있었으며 앞으로 그의 활동성과에 따라 우리교회 해외선교활동의 무대가 크게 확장되며 또한 세계적인 보수교단 선교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선교전략 수립에서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에 이르기까지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육호기 선교사는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파송되기 직전까지 수원노회 산하 평택 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하였으며, 부인 김희자 전도사와의 사이에는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가족을 두고 떠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힘껏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파송된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내외와 이연호 선교사,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 일본의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아르헨티나의 신동수 평신도선교사를 위하여도 계속하여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여 줄 것을 해외선교회는 강조하시 부탁하고 있다.

# 새해 제직 및 구역권찰 임명

## —주교 교사도 오늘 임명—

당회는 지난 12월 5일 1977년도에 시무할 제직 558명(권사—15명, 남집사—159명, 여집사—400명)을 임명함에 이어 12월 12일에는 5개지구 총 92개 구역의 권찰 350명과 94명의 구역장(권사—9명, 남집사—77명, 여집사—6명)도 임명하였다. 아울러 오늘(19일) 3부 예배 때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임명할 예정이며 오는 26일에는 성가대원과 기타 주요기관 위원들이 임명될 예정이다.

## 전도위원회, 장락교회 자립대책 마련

### —부평공단교회의 10여개처 보조키로—

남전도회 지교회인 장락교회는 개척한지 8년이 경과되도록 자립하기 힘든 처지에 있어 장항오리교회를 자립시킨 전례를 살려 장락교회 앞으로 다수의 농지를 매입하여 좁으리써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전도위원회는 결정하고 당회에 허락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부평공단 우리교회를 보조하는 일과 10여개처를 보조하는 일도 청원하여 왔는데 당회는 전도위원회의 원안대로 모두 허락하였다.

## 1976학년도 주교 수료 및 진급

### —26일 실시 위해 각부 준비 한창—

1976학년도 주일학교 수료 및 진급식이 오는 26일 각부별로 거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주교 각부는 현재 수료생을 위한 사정회를 열고, 연말 종합성적을 내며, 학생 신상에 관한 각종 관계서류를 정리하는 등 학년말 준비에 한창이다. 아울러 오늘(19일) 3부 예배 때에는 새해 주일학교 교사 임명이 있으며 각부별로 새학기 준비도 서두르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학기말과 새학기를 앞에 두고 각부간의 원활한 학생 인수 인계 및 학급편성을 위해 유의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 새신자부 어린이, 장년 나누기로

### —그간의 잠정적 운영을 제도화—

이제까지 새신자들의 육성과 지도는 물론 교회생활 안내 등으로 교회 부흥에 한몫을 차지해 온 새신자부가 새해부터 「장년 새신자부」와 「어린이 새신자부」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되 지도체제는 종전과 같이 단일 새신자부 부장과 지도교역자 지도하에 두어 새신자 육성에 더욱 힘쓰리라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그간 잠정적으로 실시해 오던 장년 새신자의 교육효과가 크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 새해부터 예산편성은 물론 교사도 정식으로 배정 임명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어린이 새신자를 위한 부교역자 및 지도교사의 보강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일학교 교사총회 소집공고

- ☐ 대상 : 총현교회 주일학교 교사
- ☐ 일시 : 1976. 12. 27(월) 오후 7시
- ☐ 장소 : 본당 대예배실과 각부 예배실
- ☐ 내용 : 예배, 1976년 사업보고 및 결산, 1977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교직 수정, 각부 신규임원 및 교사교체

\*당일 6시부터 저녁식사 제공

총현교회 주일학교 교장 김 창 인

## 토막소식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13, 14일(2일간) 의정부지방 연합부흥회를 인도하였다.

\*교회는 신년도에도 본교회 수찰 1,500부를 발행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지난 12월 12일 거행된 남전도회 총회에서 김기정 장로가 회장으로 유임되었다.

\*같은 날 권사회 총회에서는 이영주 권사가 회장에 당선되었다.

\*지난 12월 14일 거행된 산업전도회 총회에서 김종석 장로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회는 신년도 주일학교 부장 및 지도교역자로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부장/지도/부지도). 영아부—박창수/정소영, 유치부—조현명/정연희, 유년부—한경일/김영희, 초등부—김종석/김태현, 중등부—이운선/윤형철, 고등부—신계택/이승근, 대학부—홍중섭/정관일/이준교·김경성, 산전부—황기성/백성룡/김수성, 청년부—윤용규/(미정), 장년부—정석대/김종택, 노년부—우성원/김재창, 새신자부—김한홍/정기성/이정웅

\*구역권찰회는 17일 각 구역을 통해 성탄구제헌금을 거두었다.

\*영아부는 지난 11월 11일 졸업생 학부모자담회를 열었다.

\*유년부는 교사철야기도회를 지난 11월 26일 서울기도원서 가졌다.

\*초등부 어린이회 총회가 지난 12월 12일 오후에 열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하였다.

\*중등부는 11월 21일 중등부 출신 선배들을 모시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다.

\*고등부는 오는 12월 21일 성탄을 맞아 전방부대를 위문할 아를 더 견학도 할 예정이다.

\*고등부는 지난 11월 20일 먼터회 회지 코이노니아 500부를 발행·배포했다.

\*대학부는 오는 성탄절을 맞아 전방 부대로 위문할 예정이다.

\*청년부는 지난 11월 21일 서울 구치소를 방문하여 전도와 아를 더 위문을 하였다.

\*청년부는 12월 24, 25일 성탄 특별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결집하고 나서

\*...“충실은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성질의 하나이다. 이 성질은 동물도 고귀하게 하고, 그들을 거의 인간적 가치와 품위에까지 높일 정도이다. 충실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재주가 있고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 전반에 해를 미치는 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카알·힐티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에 쓴 말이다.

\*...197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동안에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일에, 생활에, 삶에 얼마나 충실히 임했는가 한번쯤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 중에 「1976년」은 완전히 가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보관되어 있어 언젠가는 우리가 실제로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금년을 마치면서 월간 충현과 함께 이모양 저모양으로 애환(哀歡)을 같이 한 간사자들이 모여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한국의 개교회에서 내는 발간물로는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키워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그동안 월간 충현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금년의 「월간 충현」은 내외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말들을 듣는다.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아 발행한 특집, 기독교의 가치관——이 문제의 어느 내용은 교회 외부의 요청이 심하여 다 응하지 못할 정도였다——문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것 같다. 특히나 외부에서의 「월간 충현」에 대한 관심과 비판, 격려 등은 우리들이 일을 해 나가는 데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반면에 교회 안의 일부 냉담·무반응·무비판 등은 늘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문제를 스스로 따져보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76년의 성장 가운데서도 아직 몇가지 문제를 미해결로 남긴채 '77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관심있는 일꾼의 부족과 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치 못했음은 못내 아픈 일이었다. 뜻깊은 문서 활동의 미흡을 개탄하는 한국교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결코 우리만의 생각일 수 없고, 생각되어서도 안된다. 「월간 충현」은 전 충현의 식구가 보다 넓고 깊고 먼 안목을 가지고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에만 우리의 「충현」이 아닌 한국교회의 「충현」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77년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해 현재보다 8년이 증면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좀 소홀했던 교회 내의 뉴우스와 선교, 주일학교 등에 좀 더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충현의 얼굴로서 부끄럽지 않게 보여지도록 또 1년을 열심으로 뛰어볼 작이다. 끊임없는 기도와 가차없는 비판·격려 있기를 바란다.

\*...금년도 월간 충현을 위해 시간과 정성으로 도와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월간 충현의 맨 앞에서 교회와의 교량적 역할을 훌륭하게 해 주신 편집위원장 위영환 장로님과 주간 신성종 목사님,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해외에서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격려해 주신 해외에 계신 교우들, 알지 못하는 지방에 계신 「월간 충현」의 독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월간 충현」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별히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글을 써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새해의 제직·구역권찰·교사·성가대원의 임명이 12월에는 연이어 있다. 새로운 직분을 맡으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으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최고의 사람은 못되어도 최선의 사람이 되어 보자던 어느 해의 당회장 목사님의 신년설교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어 자기자 처한 바에서, 자기의 힘을 다하는 「최선」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찍이 크리스찬이라 할 만한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내가 최초의 참 크리스찬이 되어 보리라」고 말하던 키에르케고오르의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 최대의 헌신을 하는 한해가 되도록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형수>

## \*월간충현은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충현에서는 충현교회 식구들의 신앙간증이나 수필·시 또는 성도의 교제나 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200자 원고용지 8매나 16매 정도로 써 보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1976 월간 충현 조직 □

발행인/김 창 인(당회장)  
편집인/위 영 환(편집위원장)  
주 간/신 성 종  
편집국장/조 선 근  
편집위원/조현명·정상우·정관일  
신성종·조신근·지금산  
이두란·고경자  
간 사/정은표·이형수·오대용  
기 자/신재성·정윤명·유화자  
·안영자·김인숙

### 》표지 설명《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또 맞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축하해야 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평범하고, 낮고, 보잘 것없는,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하는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행어나 잊어서는 안된다. 아슬아슬 보잘 것 없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비워, 주님 앞에 온전한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탄절이 유쾌하고 즐겁고 화려한 명절은 될지언정 결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칠때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 월간 「충현」 12월호 통권제36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종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12월 19일 발행

##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남전도회에서는 며칠 전, 새로 개척한 부평공단 「우리교회」입당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곳 교역자로는 한광일 전도사가 파송되어 있다.



◇ 대학부에서는 지난 감사절을 맞아 전날인 토요일 밤 유년부실에서 성황리에 연극 공연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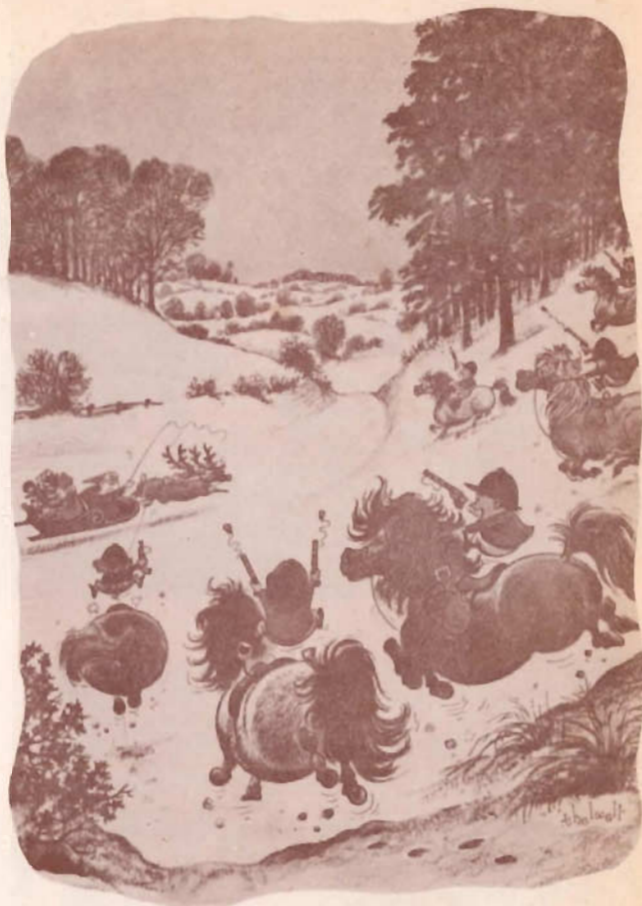
◇ 여전도회에서는 지난 10월 ○○○부대 수색중대 가나안교회를 다녀왔다. 가나안 교회는 여전도회가 지원하는 교회이다.



◇ 유치부에서는 감사절 저녁에 제 2부 특순을 맡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성도들에게는 훌륭한 솜씨와 재능으로 기쁨을 안겨주었다.



◇ 남전도회에서는 지난번 경기도 여주군 소재 와룡리에서 무료진료 봉사를 하였는데 그 날 150여명에게 의료전도를 했다.



## 충현의 모든 식구들에게

저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헤어진 부모와의 만남을, 잊었던 친구와의 만남을,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의 만남을, 동방 박사의 별을 만남을, 양치는 목동들의 예수님의 만남을.

만남 속에서 기쁨을, 만남 속에서 위안을, 만남 속에서 평안을, 만남 속에서 영광을.

해외에 나가 있는, 군에 몸담고 있는, 출타 중인, 모든 곳에 있는 충현의 식구들에게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태어나신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